

<미야자키현의 그린 투어리즘>

미야자키현은 울창한 산들과 아름다운 해안선 등 뛰어난 자연환경이 풍부합니다.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생각대로 여행과 레저를 즐기는 것이 어렵지만, 그럼에도 조금씩 여가를 즐기려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번 달의 리빙인 미야자키에서는 미야자키의 그린 투어리즘과 그 활동에 대해서 소개합니다.

그린 투어리즘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자연과 문화를 접하며,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의 여가 활동을 의미합니다. 미야자키현의 농산어촌에서는 자연 · 문화 · 농림수산물과 같은 많은 자원과 그 자원을 지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미야자키 만의 전통적인 생활 체험과 농산어촌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체재하는 팜스테이는, 관광지를 바쁘게 돌아다니는 여행과는 다르게 농산촌의 자연을 만끽하고, 체험을 즐기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며 심신의 재충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


~미야자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린 투어리즘과 팜스테이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~

○ 노베오카시에서는 팜스테이를 비롯하여 바다낚시와 스노클링, 카누와 씨 카약 등 산 · 강 · 바다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정보는 노베오카 후루사토 투어리즘 협의회에서 : <http://tourism-nobeoka.jp/>

○ 모로츠키카촌에서는 6 · 7 월에 찾잎을 따서 옛 그대로의 오래된 민가에서 가마이리차를 만드는 체험과 희귀식물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쿠로다케(黒岳) 등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정보는 모로츠키카촌 관광협회에서 : <https://www.morotsuka-tourism.jp/>

○ 시바촌에서는 오래된 민가에서 멀리 산을 바라보며 요가 체험을 하거나, 이나카 미소를 만들거나 하며 지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정보는 시바촌 관광협회에서 : <https://www.shiibakanko.jp/>

○ 코바야시시 · 에비노시 · 타카하라정에서는 흙과 함께 기분 좋은 땀을 흘리며 자연과 대화하는 농업 체험과 농가민박, 그리고 삼림욕과 수많은 별이 보이는 밤하늘을 즐길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정보는 기타키리시마 이나카 모노가타리에서 : <https://kitakirishima.com/>

○ 상기 이외의 그린 투어리즘과 삼림 테라피, 각종 자연 체험에 관해서는 「미야자키 투어리즘 협의회」(<http://miyazakitourism.com/>)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.

미야자키의 풍요로운 자연을 만끽하고, 미야자키에서 예부터 영위하고 있는 생업과

생활을 체험하여 새로운 미야자키의 매력을 발견해 보지 않겠습니까?

※일본어 번역은 후일,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.

이 코너로의 질문, 의견,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.

TEL : 0985-32-8457 FAX : 0985-32-8512 Email miyainfo@mif.or.jp

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.

TEL : 0985-41-5901 FAX : 0985-41-5902 Email support@mif.or.jp